

■ 연구원 소식**○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5월 4주차 “영상택배” 안내**

지난 주 보내드린 김순석 박사의 전라도의 풍류에 이어 이번 주도 영상택배를 올립니다. 이번 주에 회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며 우리 연구원 평의원이신 전병구 박사와 함께 하는 강좌입니다.

일제 강점기 - 일본 추구한 인간상 -을 주제로 한 이번 강좌는 일제가 황국신민 양성을 위해 진행한 교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이러한 교육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가운데 오늘날에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레터와 함께 보내드리는 인문강좌 영상택배로 코로나19를 밀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 유영봉 교수와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연기 안내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나눔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향후 구체적 일정이 수립 되는대로 연락 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화평한 날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 67호

세계 시민임을 자처하며 지구 곳곳을 누비시는 김천식 회원께서 지난 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연재되었던 발로 쓰는 미국 풍경 연재를 마치고 다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천식 박사는 기독교사 뿐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2018년 이후 다시 이어지는 “발로 쓰는 유럽 풍경”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리의 명소 - 파리의 벼룩시장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파리시내 남쪽에 위치한 방브 벼룩시장

프랑스 파리에서 여성들에게 관심 있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쇼핑 장소라 할 수 있다. 즉, 백화점 또는 명품관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내 중심부의 샹젤리제 거리를 들 수 있겠는데, 사실 이곳은 상상외로 고가의 명품들만 판매한다.

그 다음으로 다소 저렴한 패션거리는 렌거리(Rue de Rennes)를 들 수 있다. 렌거리는 생 제르맹교회 앞에서 몽파르나스 까지 직선으로 1.5km가 되는 긴 거리인데, 좌우로 수많은 가게가 늘어서 있다.



렌 거리의 상가



그렇다고 렌 거리의 가게들이 결코 싸구려 상점이 아니다. 다양한 전문 메이커 점들인데, 의류, 신발, 생활 용품, 화장품 등 수없이 많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특히 이곳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세일기간이 있다. 세일 기간은 한 달간 계속된다. 여기의 세일의 특징은 은 평소 팔던 상품을 그대로 놓고 판매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일이 시작되는 1개월 전부터 새로운 상품을 금지 하는데, 이는 세일용 가짜 상품을 못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물론 유행지난 물품을 갖다 놓고 헐값에 넘기려는 알뜰한 상술도 없다고 한다. 아무튼 그 세일기간(다들 컴퓨터 선수들이니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임)을 잘 만나면 수지맞는 구매를 할 수 있다.

이제는 벼룩시장은 파리에 3곳이 이름이 있다. 그 중 우선 두 곳을 소개하자면 첫째는 방브(Vanves)시장 과 생투앙(Saint Ouen)시장이다. 방브시장은 남쪽인데, 지하철 13호선을 이용하여 포트 드 방브역에 내리면 인근이다. 이곳은 노천 시장이고 토요일에만 장이 선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리지 않고 아침 8시 30분부터 1시30분까지 만이기 때문에 아침에 서둘러 가야한다. 방브에는 도자기, 그릇, 고가구, 종, 촛대 등 별별 물건들이 다 있다.

아침 일찍 가서 구경하고 있노라면 상인들이 연신 트럭으로 물건을 싣고 와서 노상에 물건을 늘어놓는데, 물건이 늘 바뀌기 때문에 덩달아 골동품 수집가들도 많고 일반 시민들이 천천히 물건을 고르는 진지한 모습도 보인다.



방브 벼룩시장 풍경

반면 생투앙 시장은 노천시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이다. 이곳에는 가구에서부터 의류, 시계, 카메라 등 비교적 고가이며, 골동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이곳에 가려면 역시 지하철을 이용하면 되는데, 4호선 북쪽 종착역인 포트 드 클리냥쿠르(Porte de Clignancourt)역에 내려 길 하나만 건너면 된다. 찾기 어렵지 않다.

벼룩시장은 외국인들보다 파리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들은 과거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럭셔리한 고급 백화점과 함께 벼룩시장도 흥미로운 구경거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투앙 벼룩시장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남해를 품은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네 번째 이야기 “나를 되돌아 보는 향일암” 2부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제2관음전 불상 | 남해를 바라보며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셨다. 좌우에는 남해용왕과 선재동자를 협시불로 배치하였다.

약수터를 지나면,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신 제2관음전이 나타난다. 좌우에 남해용왕대신과 남순동자南巡童子가 협시불로 모셔졌다. 남순동자는 『화엄경』의 주인공인 선재동자善財童子的 다른 이름이다.

『화엄경』의「입법계품」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은 인도의 남쪽 바다 한가운데에 솟은 보타락가산寶陀洛迦山에 상주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라고 한다. 관세음보살은 이곳의 맑고 깨끗한 연못가의 금강 보석 위에서 결가부좌를 하고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하는데, 때때로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이곳 향일암과 남해의 금산 그리고 저 앞바다에 떠 있는 세존도를 잇는 삼각형의 바닷속 한가운데에 용궁이 있다고 한다. 관음보살을 주불로 삼아 선재동자와 남해용왕을 협시불로 모신 제2관음전을 향일암에 다시 배치토록 한 배경이다.

맑고 푸른 물에 배들이 떠간다. 그 너머 새파란 하늘이 시원하다. 이곳은 바다뿐 아니라 하늘을 보는 곳이기도 하다. 화창한 날씨는 화창한 날씨대로 푸를 만큼 푸른 하늘이 미소를 지으니 떠가는 구름이 숨김없이 게을러도 좋은 곳이다.

장대 같은 비가 내리 쏟아지면 무연한 표정으로 맞닿은 바다와 하늘을 분간하지 않고 사정없이 내리 굽는 빗발 또한 심금을 울린다. 철마다 다른 이곳의 하늘 빛깔 또한 이곳 사람이 아니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비밀의 하나다. 이따금 남는 비행운조차 그림으로 둔갑하는 제2관음전의 하늘이다.

원통보전 왼쪽 뒤편의‘원효굴’역시 신기하기 그지없는 곳이다.바위틈을 지나는 가슴 서늘한 공간이다. 때 지어 모인 거북이 무리 속을 뱀처럼 지나는 두 줄기로 앞뒤가 이어진 원효굴이다. 제법 길다.

향일암에는 모두 7개의 굴이 존재한다. 경내로 들어올 때 이미 사용했던 2곳과 이곳을 합치면 벌써 4군데다. 그리고 대웅전 좌측에 2군데, 뒷산의 흔들바위 입구에 1곳이 더 있다. 이 7군데의 굴을 모두통과하면 해탈을 이룬다는 전설이 전해 오기도 한다.

원효굴 끝에 원효스님의 수행 도량이었던 관음전도 바다를 향했다. 아마도 본래의 원통암 자리가 이곳이었던 모양인데, 관음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로 언제나 부산하다. 관음전 옆에는 해수관음상海水觀音像이 섰고, 앞쪽에는‘원효스님 좌선대’란 안내판이 놓인 너럭바위가 보인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좌선에 임하셨을 원효스님의 자취가 어린 곳이다. 바다가 햇살에 반짝인다. 관음전은 용맹정진하던 원효스님에게 관음보살이 현신하신 자리다. 그 사실은 다시 관음전의 주련에 한 편의 시로 남았다.

한 떨기 붉은 연꽃이 바다 속에 있어 一葉紅蓮在海中
푸른 파도 깊은 곳도 현신으로 통하나니 碧波深處現身通
어젯밤 보타락가산에 계시던 관자재보살께서 昨夜寶陀觀自在
오늘 아침에 도량 가운데로 내리셨구려 今朝降赴道場中

관음전은 손으로 만져 보는 자리다. 푸른 하늘에 손을 담그기도하고 새파란 바다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손톱에 물을 들이는 곳이다. 투박한 돌 위에 남은 천연의 무늬가 신기해서 어루만져 보는 곳이기도 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보듬는 곳이다. 유별나게 아름다운 경치를 손끝으로 문질러 떠나없이 가슴에 점자點字로 새기는 곳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관음전은 나를 돌아보는 자리다. 잔잔한 물살로 등 굽는 푸른 바닷물을 얼마 동안 들여다보노라면 결국자신과 벗하게 된다. 해무 속에 가려진 내 모습이 차츰 드러나고 물비늘 위로 내가 지나온 궤적이 그려진다.

산다는 일은 깨어지는 파도처럼 이렇게 무의미한 자취인지도 모른다. 사랑과 미움, 행복과 슬픔으로 아롱진 그림자가 구름이 되어바다를 덮었다가 사라진다. 번뇌의 물결이 잠든 고요한 바다를 관음전은 과연 일 년 중에 며칠이나 바라볼까?



원효굴 | 관음전을 향해 오르자면 가슴이 절로 서늘해지는 동굴 길이다. 수많은 탐방객들의 발걸음으로 계단에는 세월의 켜가 진득하다.

다음 주는 남해를 품은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다섯 번째 이야기 “금오산에서 보는 남해”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